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진효재** · 최연실***

< 초 록 >

본 연구는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에서의 모-자녀의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한부모가족 중 모-자녀 12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각 6쌍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 총 10회기의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양적 통계분석으로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U test,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질적 분석으로는 Colaizzi(1987)의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둘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또래 수용과 어머니 수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셋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모-자녀는 개인 내적인 변화, 관계적인 변화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에서의 모-자녀의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지각에 미치는 효과성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모-자녀 상호작용, 한부모가족, 치료놀이,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지각.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yschoi@smu.ac.kr).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I. 서 론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결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유아에게 부모는 가족 내에서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이상희, 2003).

오늘날의 사회는 급격한 현대화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권은희, 2008). 한부모가족을 가리키는 용어는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부재하는 가족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편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이러한 가족을 편견 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이며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려는 시각을 반영하는 ‘한부모’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현은민, 임보래, 장경문, 2006), 이 용어가 보편화되어 현재에는 이 용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통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은 심리적인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송성자, 2002).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에서 부 혹은 모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부모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위탁하고 있다.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가정의 일과 더불어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생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강순남, 2009).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은 부자가족에 비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모자가족은 부자가족에 비해 3.4배가 더 많으며(국소영, 2013), 모자가족에서의 어머니는 배우자의 상실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담당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해 과도한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과 함께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가족 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만을 갖기 힘들다. 또한, 모의 과중한 역할수행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 접촉시간, 대화와 같은 상호작용이 부족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 등을 등한시 하게 되는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자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고, 자녀양육에서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양육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부모역할에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야기된다(김지선, 2011). 즉, 모자 가족의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양육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은진, 2011; 호유연, 2008).

이와 같이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손상되면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안인순, 2002).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지영, 2001; Abidin, 1990).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최정미, 우희정, 2004). 이처럼 유아의 발달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녀와 상당한 시간을 접촉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자아지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계숙, 2003).

한편, 자아와 관련해서는 ‘자아지각’, ‘자아개념’, ‘자아도식’, ‘자아존중감’, ‘자기평가’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자아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역량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정도에 대한 사고와 기분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긍정적 자아지각 또는 부정적 자아지각이 형성된다(민정원, 2000; 박상미, 2000; 이민주, 2002)고 한다. 자아지각은 사회·정서의 발달에 있어 핵심적이며 이후에 대인관계, 정서적 성숙, 학업성취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인간발달에 기초가 된다. 즉, 이후의 삶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문영숙, 2002; 이계숙, 2003). 자아지각은 ‘자아존중감’이라는 용어로도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민정원, 2000; 박상미, 2000; 이민주, 2002).

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부 또는 모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안정되지 못한 가족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자와 동일시 대상을 상실하게 되며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걱정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기가 힘들며, 유아 스스로 느끼는 가족에 대한 불편감이나 다른 또래들과 같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갖게 된다(김혜린, 2012). 또한 환경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겪는 부모의 갈등 및 이혼 후의 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순남, 2009). 이와 같이, 자아지각은 자기가 당면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한데,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지각은 주변환경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고 이는 발달단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김혜린, 2012).

일반적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에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의 부담을 안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며, 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결여된 유아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국소영, 2013). 따라서,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에게 적합한 심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대상만을 참여시켰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어느 인간관계와 다름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관계로 볼 수 있어, 한부모가족의 자녀 프로그램과 부모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서현, 2008; 김지선, 2011).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연구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치료놀이 분야에서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자녀 관계 개선, 모-자녀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은희, 2008; 김서현, 2008; 김지선, 2011; 안경숙, 2012).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 방법 중 치료놀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자아심리학이론, 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치료놀이는 초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하여 놀이의 주도권을 성인이 가지고 아동에게 민감한 반응과 조절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통하여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는 접근방법이다(이향숙, 임지향, 권명옥, 2006). 또한, 치료놀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양육자와의 애착, 타인에 대한 신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며, 부모로 하여금 치료놀이를 통하여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Jernberg & Booth, 199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치료놀이의 이론적·실질적 측면은 사회, 정서발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발달의 기초가 되는 자아지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치료놀이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유아가 자신의 가치부여를 높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에게 다양하고 조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아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지금-여기’의 구체적인 경험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활동적인 접근을 통하여 유아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해준다(홍정애, 2003).

한편,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재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자녀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서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고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치료놀이는 상처받고 거절당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방법이기에 때문에(최순옥, 2005),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를 해주면서 치유의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인 특성 따르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조혜영, 2009).

특히, 치료놀이에서 가족치료놀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족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며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도움으로써 가족의 적응과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형성 및 사회적 능력에도 효과가 있는 유용한 개입방법이다(홍정애, 2007).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를 중심으로 접근하기에 적합한 모델은 모-자녀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치료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치료놀이는 부모님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도하고 격려하여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도록 지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관계중심 치료이기도 하다(Munns, 2000). 가족치료놀이의 이론적 배경은 가족치료이론의 기본개념인 애착이론과 가족도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의 집단으로 하나의 체계라고 보는 체계이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족치료적인 함의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놀이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자 한부모가족 내에서 모-자녀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지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자아지각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수용 정도, 어머니 수용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자아지각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자아지각이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은 유아 발달 중 기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인의 내적인 변화와 관련되며, 또래 수용 정도와 어머니 수용 정도는 유아 발달 중 사회성을 반영하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자녀를 함께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모-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하여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접근하려는 시도로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자녀 상호작용, 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지각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 유아의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인지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또래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4.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어머니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기(만 3~5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0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12쌍의 모-자녀 중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참여에 동의한 6쌍의 모-자녀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거리상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실험집단과 근사한 조건의 환경을 가진 한부모가족 모-자녀 6쌍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있어 집단의 역동과 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소집단의 형태로 구성하게 되었다(이상희, 2003; Landreth, 1991).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총 12쌍의 모-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에 서울시 4개구 소재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개인 상담실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얻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지각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사전검사 실시 후 실험집단에만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2-1. 실험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인	A가족	B가족	C가족	D가족	E가족	F가족
연령	45세	33세	34세	38세	30세	37세
학력	고졸 이하	고졸 이하	고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고졸 이하
직업 유무	유	유	유	유	유	유
월수입	150만원	80만원	100만원	55만원	200만원	100만원
한부모 기간	5년	6년	6년	5년	5년	5년
한부모 사유	사별	미혼모	미혼모	미혼모	미혼모	미혼모
성별	여	남	여	남	남	여
연령	7세	6세	6세	5세	5세	5세
형제 유무	무	무	무	무	무	무

표 2-2. 비교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인	G가족	H가족	I가족	J가족	K가족	L가족
연령	39세	48세	30세	37세	32세	36세
학력	대졸	고졸 이하	고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고졸 이하
직업 유무	유	유	유	유	유	유
월수입	20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80만원
한부모 기간	5년	4년	6년	2년	5년	5년
한부모 사유	이혼	이혼	미혼모	이혼	미혼모	미혼모
성별	남	여	여	남	남	남
연령	7세	7세	6세	6세	5세	5세
형제 유무	무	유	무	무	무	무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문가 3인(가족상담 전공 교수, 치료놀이 전문가, 가족상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연구보조자 1명(가족교육·상담 전공)과 함께 진행하였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로그램의 매 회기 진행시간은 60~70분이고,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의 집단 상담실이었다. 매 회기마다 녹화와 더불어 모 또는 유아와 1:1로 면접을 실

시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지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1>, <표 2-2>와 같다.

2. 측정도구

1)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rnic과 Greenberg(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Parenting Daily Hassles: PDH)의 문항을 황우상(201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불편하고 귀찮은 사건의 스트레스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의 예로는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어지럽힌 것을 계속 치워야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우상(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며,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다.

2) 자아지각

본 연구의 자아지각 척도는 유아의 자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ter와 Pike(1984)의 도구인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 척도를 이은해, 최혜경, 김미혜(1990)가 수정한 유아용 자아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예비문항 1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그림과 문항이 포함된 반응기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용 정도, 어머니 수용 정도의 4가지 하위범주를 측정한다. 인지적 능력 영역의 예로는 ‘그림 조각을 잘 맞춘다.’ 등이 있으며, 신체적 능력 영역의 예로는 ‘혼자 그네를 탄다.’ 등이 있다. 또래수용 영역의 예로는 ‘함께 놀 친구가 많다.’ 등이 있으며, 어머니 수용 영역의 예로는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등이 있다. 검사는 시간제한이 없이 개인면접으로 이루어진다. 검사자는 유아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문항을 질문한 후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한 후 ‘그렇다’를 대답한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로, ‘그렇지 않다’를 대답한 경우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로 다시 응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검사자는 해당 문항에 4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유아의 응답을 반응 기록지에 표기한다. 하위영역별로 점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영근, 2008). 서연주(200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이며, 이은혜 등(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9이다.

3. 프로그램의 목표, 구성 및 절차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에서 구성한 한부모가족 모-자녀에 대한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유아의 자아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바람직한 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 내 모-자녀의 긍정적인 신체접촉을 강화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며, 안정적인 애착을 재형성시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둘째, 한부모가족 내 모는 양육 부담감을 줄이고 모 자신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갖게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지지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넷째, 한부모라는 비슷한 경험을 한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와 지지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지각 향상,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주 1회 60분~70분씩 총 10회기로 실시하였다.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6쌍의 모-자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과 양육형태를 모델링으로 모방하게 하고 어머니를 공동치료자로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선행연구(권은희, 2008; 김윤경, 2005; 박은희, 2008; 이상희, 2003; 최순옥, 2005; 홍정애, 2007)를 참고로 하여 직접 개발한 것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3인(가

족상담 전공 교수, 치료놀이 전문가, 가족상담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각 회기마다 구조, 도전, 개입, 양육, 재미의 치료놀이 원리를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입의 원리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킨다. 첫째, 구조의 원리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조절과 규칙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부모가 내적인 조절능력을 갖게 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둘째, 도전의 원리는 부모가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여 문제 상황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난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여 좌절하지 않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셋째, 양육의 원리는 모-자녀 또는 집단원간의 신체접촉을 통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며 타인의 정서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넷째, 재미의 원리는 상호 관계에 있어 즐거움을 준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4가지 원리를 근간으로 한 총 10회기로 구성되며, 크게 초기, 중기, 종결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단계에는 4가지 원리 중에서 양육과 개입의 원리, 중기와 종결단계에는 구조와 도전의 원리가 강조되며, 각 단계에 맞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기(1회기~2회기)의 목표는 집단구성원들과 치료자가 라포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호간 신뢰감을 쌓는 것이다. 초기단계는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즐거운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집단의 규칙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탐색의 단계이다. 시작단계의 활동은 편안함,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과 개입 위주의 단순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잘 구조화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중기단계(3회기~8회기)는 목표문제를 다루는 단계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지각 향상과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하게 하고 집단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지지적인 역할을 해 주면서 사회성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성취감과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와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향상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모-자녀 상호작용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표 2-3.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원리

단계	회기	활동명/ 치료놀이 원리
사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자아지각 • 모: 양육스트레스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리엔테이션/ 구조 2. 프로그램 안내/ 개입
초기 단계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몸 인사)/ 개입 2. 우리아이(엄마) 자랑/ 개입, 양육 3.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입, 구조 4. 터널 통과/ 개입, 도전 5. 엄마 찾기/ 양육, 도전 6. 손 닦아주기/ 양육 7. 먹여주기/ 양육 8. 느낌 나누기/ 개입, 양육 9.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인형인사 I)/ 개입, 양육 2. 나는 누구일까?/ 개입, 양육 3. 휴지 탈출!!/ 양육 4. 휴지 패션쇼/ 양육, 개입 5. 휴지 뜯기/ 개입, 구조 6. 휴지 날리기/ 개입, 구조 7. 휴지 골인/ 도전 8. 손 닦아주기/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특별한 악수)/ 개입, 양육 2.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개입, 도전 3. 이불 말이/ 개입, 양육 4. 워크 이불/ 개입, 구조 5. 날아라 양탄자/ 도전 6. 이불 그네/ 양육 7. 안마하기/ 양육, 개입 8. 손 닦아주기/ 양육, 개입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양육, 개입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인형인사 II)/ 개입, 양육 2. 우리 아이(엄마)손은?/ 양육, 도전 3. 호일 손(발)뜨기/ 구조 4. 사랑스러운 엄마와 나/ 양육 5. 둘이 살짝 손잡고/ 개입, 구조 6. ○○이가 말하길/ 개입, 도전 7. 우리는 하나/ 구조, 도전 8. 손 닦아주기/ 양육, 개입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양육, 개입
중기 단계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모두의 인사)/ 개입, 양육 2. 풍선 불기/ 개입 3. 신체로 풍선 치기/ 도전 4. 풍선 끼고 돌아오기/ 개입, 도전 5. 보자기로 풍선치기/ 도전 6. 물 풍선 전달하기/ 개입, 구조 7.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8. 먹여주기/ 양육 9. 느낌 나누기/ 양육 10. 작별 인사 나누기/ 양육, 개입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동물인사)/ 개입, 양육 2. 전화 왔어요./ 개입, 양육 3. 로션 전달하기/ 개입 4. 토끼의 여행/ 구조 5. 불 위에 오징어/ 개입, 구조 6. 사랑의 밭چه/ 도전 7. 거울놀이/ 개입, 양육 8.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양육, 개입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싱글빙글)/ 개입, 양육 2. 컵 쌓고 무너뜨리기/ 구조, 도전 3. 이만큼 컷어요!/ 개입 4. 신호등 놀이/ 구조 5. 세차장 놀이/ 개입 6. 꼬리잡기/ 개입, 도전 7. 사랑하는 우리 아이/ 양육 8.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나는 누구?)/ 개입, 양육 2. 떨어져라!/ 개입 3. 달팽이집을 지읍시다./ 개입, 구조 4. 선 뛰어넘기/ 도전 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개입, 구조 6. 여기 저기!/ 개입, 양육 7. 툭툭히 안마하기/ 양육 8.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종결 단계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모두의 인사)/ 개입, 양육 2. 마네킹 놀이/ 개입, 구조 3. 공 전달하기/ 구조, 도전 4. 로션 미끌/ 개입, 도전 5. 너는 소중한단다./ 양육 6. 소원 빌기/ 개입 7. 비밀이야/ 개입, 양육 8.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하기(특별한 악수)/ 개입, 양육 2. 솜 공 축구/ 개입 3. 불어라 자석/ 구조, 양육 4. 소원 도미노/ 구조, 도전 5. 서로에게 편지쓰기/ 양육 6. 편지 전달하기/ 양육 7. 솜볼 끄기/ 구조 8. 손 닦아주기/ 개입, 양육 9. 먹여주기/ 양육 10. 느낌 나누기/ 양육 11. 작별 인사 나누기/ 개입, 양육
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자아지각 • 모: 양육스트레스

적인 정서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도전적인 활동과 서로 협력이 필요한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종결단계(9회기~10회기)는 집단구성원들이 끝맺음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단계로서, 상실에 대하여 예방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유아가 유대감과 친밀감, 신뢰감을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어머니와 유아가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되고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모-자녀 상호작용이 증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여 각각의 집단 구성원들을 지지해 주고 격려하면서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가족상담 및 치료 전공 1명이 연구보조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회기별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원리는 <표 2-3>과 같다.

4. 자료 분석

1) 양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가 실험집단 6쌍(12명), 비교집단 6쌍(12명)으로 모수통계의 가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통계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비모수통계 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시 실시한 변인에 맨-휘트니 U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에 대하여 사전-사후검사 간 차이 검증을 위해 Wilcoxon의 짝을 이룬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여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를 알아보았다.

2) 질적 분석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자세히 탐색하기 위하여, 매 회기 70분 동안 녹화한 후 회기가 끝난 다음 날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참여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프로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모-자녀의 경험과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변화와 경험을 알아보고 치료적 요인으로 어떤 요인이 의미 있게 작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중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는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삶에 있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 의미의 발견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참여자가 직접 쓴 글과 진술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10회기의 녹화된 자료, 각 가족별로 기록된 총 49부의 관찰일지, 6회기부터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분 동안 현재 가족의 어려움과 참여를 하면서 변화된 부분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개별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 참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변화된 부분, 모-자녀 간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얻어진 정보를 수집한 후 반복하여 확인하고, 어머니와 유아의 의미 있는 진술 및 비언어적 행동관찰기록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가 있는 진술들을 이끌어내어 주제(theme)를 뽑고, 명확한 주제들을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구성한 후 범주화(categories)하였다.

질적 분석의 모든 과정은 지속적으로 원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전문가 2인(가족상담 전공 교수, 가족상담전문가)의 지도 아래 가족교육·상담전공자인 연구보조자와 함께 한부모가족 모-자녀의 경험 및 치료적 요인을 추출하였고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표 3-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지각의 동질성 검증

	평균순위		U	Z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의 양육스트레스	5.50	7.50	12.00	-.96	
유아의 자아지각	인지적 능력	6.33	6.67	71.00	-.16
	신체적 능력	5.25	7.75	10.50	-1.21
	동료 수용	6.58	6.42	17.50	-.08
	어머니수용	5.25	7.75	10.50	-1.22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각각 6쌍(12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지각 점수의 사전점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수의

제한을 덜 받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만-휘트니 U검증(Mann-Whi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검사 결과 모든 요인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동질적인 상태이며,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검증

집단 내 사전·사후 검사 비교를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모의 양육스트레스 점수 차이 검증을 위해 실시한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의 짝을 이룬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모의 양육스트레스 사전·사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N ^c	Z
		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 합		
모의 양육 스트레스	실험 (6)	1.00	1.00	4.00	20.00	5	-1.99*
	비교 (6)	3.75	7.50	3.38	13.50	4	-.631

^a사전점수 < 사후점수. ^b사전점수 > 사후점수. ^c사전점수 = 사후점수.
* $p < .05$.

분석 결과, 실험집단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높은 사람은 1명,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낮은 사람은 5명, 사전·사후검사가 같은 사람은 0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z = -1.99, p < .05$). 한편, 비교집단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높은 사람은 2명,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낮은 사람은 4명, 사전·사후검사가 같은 사람은 0명으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지각에 미치는 효과 검증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의 자아지각 점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수 차이 검증을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의 짝을 이룬 부호 순위 검증 (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유아의 자아지각 점수 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유아의 또래수용에 있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은 사람은 6명, 사전점수가 사후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0명, 사전·사후 점수가 같은 사람은 0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z=-2.20, p<.05$) 비교집단에서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은 사람은 0명,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낮은 사람은 2명, 사전·사후 점수가 같은 사람은 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3. 유아의 자아지각 사전·사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N ^c	Z
		평균순위	순위합	N ^a	평균순위	순위합	N ^b		
인지 능력	실험 (6)	3.70	18.00	5	2.50	2.50	1	0	-1.68
	비교 (6)	3.50	14.00	4	3.50	7.00	2	0	-.73
신체 능력	실험 (6)	2.50	10.00	4	.00	.00	0	2	-1.89
	비교 (6)	1.50	3.00	2	.00	.00	0	4	-1.41
또래 수용	실험 (6)	3.50	21.0	6	.00	.00	0	0	-2.20*
	비교 (6)	.00	.00	0	1.50	3.00	2	4	-1.41
어머니 수용	실험 (6)	4.00	20.00	5	1.00	1.00	1	0	-1.99*
	비교 (6)	4.50	4.50	1	2.63	10.50	4	1	-.82

^a사전점수 < 사후점수. ^b사전점수 > 사후점수. ^c사전점수 = 사후점수.

* $p < .05$.

유아의 어머니 수용에 있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점수가 사후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5명, 사전점수가 사후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1명, 사전·사후 점수가 같은 사람은 0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z=-1.99, p<.05$). 비교집단에서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은 사람은 1명,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낮은 사람은 4명, 사전·사후 점수가 같은 사람은 1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아의 자아지각 중 또래 수용과 어머니 수용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외의 자아지각 변화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3.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모-자녀가 경험한 변화와 치료적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모와 유아의 보고와 관찰자의 관찰 보고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결과, 모-자녀가 경험하는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내적인 변화로서 행동과 의사소통,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 모-자녀는 표정이 밝아지고 눈 맞춤과 신체접촉이 증가하였다. 또한, 칭찬과 격려,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진되었고, 자신감이 생기는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관계적인 변화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며, 관계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집단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대인관계에서도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었으며, 관계를 통하여 타인의 장점을 모방하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였다. 셋째, 모-자녀 중 일부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거리상의 어려움과 시간에 대해 불편함을 보였고, 종결에 대한 불안을 보고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크지는 않았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 내 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어머니와 유아의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관찰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활동 중에 보여준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와 행동을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집단구성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변화와 변화의 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낸 모-자녀가 지각한 공통적인 변화와 치료적 요인은 <표 3-4>과 같다.

치료적 요인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구체적인 반응을 보면, 첫째, 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A모), 우리 엄마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C유아)는 사례가 있었다. 둘째, 모 자신도 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F, E모)는 사례와 엄마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즐겁다(D유아)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놀이를 하다 보니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편안해졌다(D모),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A모)는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 엄마 좋아졌다(C유아)는 사례도 있었다. 넷째, 아이가 집에서 먼저 놀이하라고 이야기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를 하거나(D모) 집에서 슈퍼놀이를 엄마와 했다(A유아)는 사례가 있었다. 다섯째, 휴지놀이와 오징어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고(B, D, A모; B유아), 아이가 먹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재미있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E모)는 사례가 있었다. 여섯째,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알고 일상생활에서도 놀이를 한다(C, D, B모)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발표력이 늘었다(A유아)는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F모), 모두 힘든 상황인데 밝게 지내는 것을 보니 힘이 되었다(D모)는 사례가 있었다.

표 3-4. 모-자녀가 지각한 공통적인 변화와 치료적 요인

공통적인 변화	치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에게 몰입을 하게 됨 • 대화가 많아짐 • 눈높이가 낮아짐 • 자녀의 이야기를 듣게 됨 •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또는 자녀에 대해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고 관심이 생김 ❖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돌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이 밝아짐 • 놀이의 방법을 알게 됨 • 놀이 지속시간이 늘어남 •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임 • 서로를 수용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 됨 • 눈 맞춤이 증가함 • 부드러운 신체접촉이 증가 • 칭찬을 많이 하게 됨 • 자녀를 기다리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 여유가 생김 ❖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놀이를 찾게 됨 • 놀이에 몰입하게 됨 • 몸도 마음도 즐거워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의지 ❖ 놀이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놀이를 찾아 봄 • 어머니 역할에 자신감이 생김 • 적극적으로 행동함 • 발표력이 늘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어머니의 말투를 모방함 •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족을 보면서 힘을 얻음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사전·사후 검사를 한 결과 비교집단과는 달리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녀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놀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내 모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양한영(2009)의 아토피 유아의 적응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효과와 이상희(2003)의 모-아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또래 수용과 어머니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유아의 자아지각 하위요인 중 또래 수용과 어머니 수용의 사전·사후를 검사한 결과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 수용은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 중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 풍선 올리기, 꼬리잡기, 여기저기 등에 참여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유아들은 친밀감과 협동심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를 알아갈 수 있었으며, 집단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증진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였다. 즉,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발달시켜 또래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 수용을 볼 때, 부모-자녀 관계를 기초로 한 치료놀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하여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눈 맞춤이나 부드러운 신체접촉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먹여주기, 안마하기, 사랑스러운 엄마와 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상호적인 애정표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과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유아는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며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어머니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치료놀이가 유아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향숙(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한부모 가정,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김선영(2013), 홍정애(2003), 이화현(2003)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셋째,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유아의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아의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사전·사후를 검사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사전검사에서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에 있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후검사 역시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한부모가족 유아는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국소영(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유아의 자아지각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개인 내적인 부분보다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타인과 친밀한 신체적 접촉과 애착형성에 중심을 두었고, 모-자녀가 함께 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상호작용 행동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모와 유아는 개인 내적인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개인 내적으로 의사소통과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일부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어려움과 종결에 대한 불안을 보였다. 치료적 요인으로는 관심이 생김·양육행동 돌아봄, 함께하는 즐거움, 마음의 여유·긍정적인 시각, 자발적 의지, 스트레스가 풀림, 자신감이 생김, 다른 가족을 보며 힘을 얻음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하여 어머니는 자녀에게 대한 관심과 민감성을 키우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자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아기 자녀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접근보다는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모-자녀의 상호작용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족치료놀이를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입증한 홍정애(2007)의 선행연구와 유아기 모-자녀를 대상으로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모-아

상호작용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한 이상희(2003)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부자가정의 아버지-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치료놀이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는 권은희(2008)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고,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한부모가족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집단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데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으로 6쌍의 모-자녀로 구성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부자가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 모자가족보다 부자가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욱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김미숙, 2000).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을 유아기로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녀의 연령층을 대상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프로그램은 실행기간과 관련된 한계를 지니는데,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 추수 조사를 통하여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10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 대상에 접근하는 난점으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한부모의 사유나 연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령, 월수입과 정책적인 가족의 지원 등을 통제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실험집단의 선정은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였으며, 참여 가능한 시기와 시간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와의 인접성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자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대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복수 사전검사 실시, 반복변경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 배정하여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0회기인 단기적으로 시행한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 모-자녀의 상호작용 증진 및 모의 양육스트레스감소,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지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단기간의 개입으로도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유아를 단일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인숙, 이정화, 2004; 호유연, 2008)가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유아를 함께 참여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공한다.

셋째, 최근 매체를 활용한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가족상담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치료놀이라는 매체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모-자녀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신체 접촉과 대상관계 및 애착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치료놀이는 모-자녀의 바람직하고 건강한 상호작용 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으로 치료놀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남 (2009).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부적응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소영 (2013).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은희 (2008). 부자(父子)가정의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서현 (2008). 해결중심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한 집단 모자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모-자 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 (201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윤경 (2005).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숙, 이정화 (2004). 제 변인에 따른 한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응 행동. 교육과학연구, 9, 311-329.
- 김지선 (2011).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모-자 관계 증진을 위한 모자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린 (2012).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숙 (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간호학술지, 5(1), 37-53.
- 민정원 (2000).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미 (2000).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 (2008).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영아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연주 (2007).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복합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숙명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성자 (2002).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안경숙 (2012). 한부모 가정의 모-자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인순 (2002). 저소득 편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한연 (2009). 아토피 유아의 적응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계숙 (2003).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민주 (2002). 유아의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희 (2003). 모-兒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영근 (2008). 유아의 수줍음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진 (2011).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모자 가정 아동의 자기개념 및 희망감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3), 269-296.

이은혜, 최혜영, 김미혜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치원용 및 초등학교 1, 2학년용 척도. 생활과학논집, 4, 175-189.

이향숙 (2005). 몬테소리유치원에 적용한 집단치료놀이가 유아의 문제행동, 자아개념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향숙, 임지향, 권명옥 (2006). 공격적 유아를 위한 애착증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285-316.

이화현 (200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혜영 (2009). 조손가족을 위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순옥 (2005). 가정폭력피해가족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정미, 우희정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

- 구. 한국생활과학지, 13(3), 361-369.
- 현은민, 임보래, 장경문 (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호유연 (2008). 한부모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애 (2003).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피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증진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애 (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우상 (2012). 취업모의 비표준근무일정과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nicek,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Jernberg, A. M., & Booth, P. (1999).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 through attachment Based play*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e.
- Landreth, G.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muncie, IN: Accelerated Development Press.
- Munns, E. (2000). *Theraplay: Innovations in attachment-enhancing play therapy*. New Jersey: Jason Aronson.
- Turner, P. H., & Harris, M. B. (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1), 105-113.

【논문 접수: 2015. 4. 29. / 수정본 접수: 2015. 5. 27. / 게재 승인: 2015. 6. 2.】

치료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자아지각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Theraplay Program of Promoting Mother
and Child Interac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 Focusing 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Jin, Hyo Jye · Choi, Youn Sh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effects of group theraplay counseling programs on the single-parent families for parent-child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To achieve this purpose, 12 pairs of mother and child in single-parent families who showed difficulty in mother and child relationship were researched. Among them,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divided into 6 pairs each. The experimental group was carried out for a total of 10 sessions of group theraplay counseling program. The non-parametric statistics, Mann-Whitney U test and Wilcoxon Signed-Ranks Test,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Besides,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of Colaizzi(197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heraplay group counseling program mitigate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n single-parent families. Second, the theraplay group counseling program brought a positive change to the peer acceptance of children and acceptance of mothers by the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Third, the mother and child in single-parent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raplay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experience with personal internal change and relational change and encountered some negative experience. Conclus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effectiveness of group theraplay counseling programs on parent-child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in the single-parent families.

Key Words: Mother and Child Interactio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Theraplay, Parenting Stress, Children's Self-Perception.